메리츠 금융 Daily

2020. 9. 15

meritz 메리츠증권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News

신용대출 폭증에 칼빼든 당국…고소득·고신용 상품 집중점검 — 서울경제

금감원, 14일 오전 국내 5대 주요 은행 및 카카오뱅크의 여신담당 임원과 화상회의를 진행…신용대출이 이달 들어서만 1조원 넘게 폭증하자 금감원이 대책 마련
금융당국은 초저금리 영향에 따른 가수요 차단에 주력…단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이 늘어난 중 · 저소득층의 생계형 수요는 제외

은행·금투도 펀드 민원 봇물…상반기 금융민원 6천건 늘었다 — 데일리안

금융감독원, 15일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발표…대출만기연장 · 상환유예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 민원 급증
은행 민원의 경우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 여신거래 관련 민원 증가세 55.7% 증가…사모펀드 환매지연 등 영향으로 방카 · 펀드 유형 민원 증가율이 439% 증가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 연합뉴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금융당국의 종합검사가 아닌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가 가능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은행권 하반기 채용 시작…신한 250명·우리 160명 — 연합뉴스

최근까지 은행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채용 일정과 규모 확정을 미뤄왔지만, 지난 주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는 등 상황이 나아지자 인재 확보
신입행원 공채, 기업금융 · 자산관리 · ICT 등 분야 수시채용…신한은행은 하반기 약 250명의 신입 행원과 전문 분야 인력, 우리은행 전문인력 40명과 신입 행원 160명

손보사, 전기차 수요 급증에 자보 손해율 걱정 —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업계와 보험업계 등에 지난해 12월 기준 8만9918대였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말 11만1307대로 6개월만에 23.8% 늘어…
전기자동차의 경우 일반자동차와 비교할 때 수리비가 평균 15% 가량 비싸기 때문에 손해율 상승의 원인…테슬라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전기자동차 판매량 급증

50대는 안됩니다…실손보험 가입 막는 보험사들, 왜? — 한국경제

14일 삼성생명은 지난달 실손보험 가입 나이 상한선을 70세에서 60세로 낮춰…지난 5월에는 한화생명이 65세에서 49세로, 동양생명은 60세에서 50세로 낮춰…
보험사 관계자, "가입 자격과 절차를 변경하지 않은 보험사도 심사를 까다롭게 해 가입자를 되도록 덜 받으려 하는 게 공통적인 추세"

6개월 연장 시작하는 공매도 금지…이젠 '국회의 시간' — 뉴스1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정기국회 법안 처리 주목…공매도 종목 지정제, 무차입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전망
김병욱 의원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연장돼 있으니깐, 업계와 투자자, 야당, 금융당국 등의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라임 판매사들, 기관제재 수위 촉각 — 뉴스토마토

라임자산운용이 최고 수준의 기관 제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 역시 기관 징계 수위에 촉각
기관주의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초대형IB 인가 등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